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도은수, 김순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for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Eun-Su Do, Soon-Gu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D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참여를 희망하고 동의한 실험군 27명과 대조군 25명으로 총 52명이었다. 대조군은 2017년 6월 1일 사전 설문조사 후 어떠한 처치도 없이 2주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7월 25일 실험처치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중재 후 8월 31일까지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에게 제공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화상, 출혈 및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내용 2시간 수강, 자율적인 동영상 시청, 강사로서 4시간 동안 초등학교 응급처치 교육수행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χ^2 test 및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t=2.08$, $p<.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t=4.22$, $p<.05$), 및 수행능력($t=5.02$,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August 31, 2017.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52 nursing students in D College of D City who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27$) or control group ($n=25$). The pretest poll was performed on June 1, 2017 and posttest poll was performed 2 weeks later without any treatment in the contro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pretest poll was performed on July 25 before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and the posttest poll was performed on August 31 after the education program.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 hours of emergency treatment instruction, autonomously watching videos, and 4 hours of teaching elementary students about CPR for adults and first aid for airway obstruction, burns, bleeding, and fractures as a lecture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 χ^2 test, and paired t-test with SPSS/WIN 20.0. After receiving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self-leadership ($t=2.08$, $p<.0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4.22$, $p<.05$)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t=5.02$, $p<.05$)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at increasing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Emergency treatment, Nursing performance ability, Nursing student, Self-leadership

*Corresponding Author : Soon-Gu Kim(Daegu Health college)

Tel: +82-10-4518-1521 email: sgkim@dhc.ac.kr

Received October 25, 2018

Revised November 8,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응급실 이용자 수는 연도별로 각각 1,019만 명, 1,042만 명, 1,034만 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각각 2만 7천 여 명에서 2만 9천 여 명으로[1],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의료인, 경찰 공무원, 보건교사,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소방안전관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시행으로 이들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3만 7천 여 명에서 3만 여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2], 교육의 효과로 짐작하며 지속적인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 사망자 수를 더 감소시켜야 한다. 응급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과는 응급의학과로 이용자 수가 438만 여 명에서 566만 여 명으로[1],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를 의심할 수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대상자는 1~9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0~59세, 40~49세 순이었으며[1], 2014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유형은 할퀴거나 긁힌 사고(56.8%), 찢리거나 베임 사고(38.9%), 빠입 및 접질림 사고(34%), 화상(20.3%), 골절(19.9%), 질식(2.7%) 등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과 부모연령 집단에서 응급사고의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고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사고 시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외상처치 교육을 시행한 결과 그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3],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기반 학습 결과 응급처치 문제해결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되었고[4],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 후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이 증진되어 [5-7], 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D시 W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D시 W교육청에서는 연구자의 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된 간호학과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졸업 전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영역의 학습활동을 한다. 특히 응급처치 교육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셀프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기통제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자기관리를 하는 내적 동기로[8], 자신의 인생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9].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였으며[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11], 학습몰입력[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한편,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자신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직업 분야를 결정하고 미래 삶의 경로와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14-16].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17-18], 더 나아가 본인의 삶에 대한 의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4]. 현재의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삶의 의미를 찾고 질적인 삶을 선택함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수행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19], 수행능력은 간호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기 중 시행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자신이 가진 극복력이 높은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고[21],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으므로[22], 본 연구 대상자들이 초등학생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므로 그들의 수행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사례기반학습 연구였으며[4], 실습교육 또는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또는 수행능력을 검정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21,23-2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그들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지 사전 사후로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D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먼저, 1학기 말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자원봉사를 시행할 수 없는 대조군 학생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으로 처리하며, 비밀을 보장함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와 함께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주 후 종강기간에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D시 W교육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54개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자원봉사자 145명 중 봉사 시행 전 사전교육에 참여할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을 신청 받았다. 7월 25일 응급처치 교육 시행 전 실험군에게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윤리적 고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동의서와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후 설문지는 실험군 학생들이 초등학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마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d) 0.8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42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27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 수는 실험군 27명 모두 참석하였고 대조군 2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27명, 대조군 25명 총 52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사전에 D시 W교육청 사무관과의 미팅을 통하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4시간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다. 사무관을 통하여 각 초등학교에 성인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교육 참가 대학의 자율로 구성하도록 요청받았으므로 초등학교들이 가정에서 활용 가능하고 응급의학과를 방문하는 성인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전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인 BLS Provider 알고리즘에 따른 성인 심폐소생술과 아동 안전사고 실태조사결과 보고서[2]를 참고하여 아동에게 빈발하는 기도폐쇄, 화상,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합의 하였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 중 ‘기본 심폐소생술 및 체제 동기 적용’의 일부에 포함된다.

7월 25일 연구자는 실험군에게 PPT를 활용하여 2시간 동안 이러한 내용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공하였으며, PPT에 있는 동영상은 개인적으로 시청하도록 자료를 배부하였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응급처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다.

대조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7]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도구를 Kim[28]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의 총 18문항의 도구로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9]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Hong[3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총 23문항의 도구로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3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4 응급처치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응급처치 수행능력 평가도구는 D시 W 교육청이 요구한 응급처치 교육목표에 따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BLS Provider Instructor 자격을 갖춘 간호대학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수행능력 정도는 성인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화상 응급처치, 출혈 응급처치, 골절 응급처치 등 5개 하위영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수행 불가’ 0점에서 ‘수행 가능’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9명(33.3%), 여학생이 18명(66.7%), 대조군은 남학생이 11명(44%), 여학생이 14명(56%)이었다. 연령은 실험군이 평균 22.3세로 20~24세가 23명(8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조군은 평균 24세로 20~24세가 19명(76%)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실험군에서 2학년 11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에서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8명(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심폐소생술 제공자 자격증은 실험군에서 23명(85.2%), 대조군에서 17명(68%)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에서만 2명(7.4%)이었으며, 학과의 선택 동기는 실험군은 ‘적성’이 10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가치 있는 직업’이 1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적성만족 정도는 실험군에서 18명(66.7%), 대조군에서 16명(64%)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의 차이 검증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전과 후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62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85점이었고, 대조군은 3.57점

Table 1.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2)

Variables	Categories	Exp. (n=27)	Cont. (n=25)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9(33.3)	11(44.0)	2.77(.096)
	Female	18(66.7)	14(56.0)	
Age	20~24	23(85.2)	19(76.0)	-1.52(.136)
	25~29	3(11.1)	5(20.0)	
	30≤	1(3.7)	1(4.0)	
	Mean	22.3±2.75	24.0±5.11	
Grade	freshman	7(25.9)	5(20.0)	-1.81(.076)
	sophomore	11(40.7)	4(16.0)	
	junior	5(18.5)	8(32.0)	
	senior	4(14.8)	8(32.0)	
BLS provider certificate	Yes	4(14.8)	8(32.0)	1.47(.147)
	No	23(85.2)	17(68.0)	
Previous emergency care education experience	Yes	2(7.4)	-	-1.39(.172)
	No	25(92.6)	25(100.0)	
Determinants for major choices	High employment rate	8(29.6)	6(24.0)	.67(.508)
	Valuable job	4(14.8)	13(52.0)	
	Aptitude	10(37.0)	2(8.0)	
	Steady work	2(7.4)	1(4.0)	
	Grade	1(3.7)	1(4.0)	
	Advice of other people	2(7.4)	2(8.0)	
Satisfaction with nursing fitness	Satisfied	18(66.7)	16(64.0)	-.20(.844)
	Neutral	9(33.3)	9(36.0)	
Self-readership		3.62±.35	3.57±.53	.38(.706)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3.38±.60	3.44±.62	-.36(.724)
Nursing performance ability		5.62±2.05	6.34±2.42	-1.15(.25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52)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b (p)
		M±SD	M±SD	M±SD	
Self-readership	Exp. (n=27)	3.62±.35	3.85±.03	0.23±.32	2.08(.043 [*])
	Cont. (n=25)	3.57±.53	3.59±.74	0.01±.5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Exp. (n=27)	3.38±.60	3.79±.63	0.40±.48	4.22(.000 [*])
	Cont. (n=25)	3.44±.62	3.61±.65	0.16±.48	
Nursing performance ability	Exp. (n=27)	5.62±2.05	8.02±.30	2.40±2.01	5.02(.000 [*])
	Cont. (n=25)	6.34±2.42	6.93±1.52	0.59±2.04	

^b= Between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p<.05

에서 3.59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8, p<.05).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38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79점이었고, 대조군은 3.44점에서 3.61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22, p<.05). 수행능력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5.62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8.02점이었고, 대

조군은 6.34점에서 6.93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2, p<.05)[Table 2].

4.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로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뒤 관련 동영상으로 자가 학습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습교육을 주관하였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셀프리더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목표와 동기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힘껏 발휘하는 과정으로 자기 기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 비판 등과 같은 효과적인 활동에 기초한 행동 전략이므로[9], 연구대상자가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과정 중 응급처치 강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PPT로 연습하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리라 짐작한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의 요소를 포함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31], 간호학과 1학년 학생보다 4학년 이[11], 운동을 하는 대학생 중 학술팀, 동호회 팀, 국가대표팀, 관심 있는 운동팀 등에 소속된 학생이[32], 자기탐색과 자기주도 기반의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수강한 대학생이[33], 병원 간호관리자의 업무 경력이 높을수록[34],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준비, 학습 및 경력을 쌓는 경우 셀프리더십이 상승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

한다. 응급처치 교육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응급처치는 간호업무 중 하나로 간호대학생이 예비 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므로 그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계획할 시점에 그룹상담을 통한 증재로 향상될 수 있으며[15], 자기이해와 탐색, 취업환경 탐색, 목표 기관 탐색, 목표설정 및 점검, 입사서류 작성하기, 공개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의 진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35]. 한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의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등으로 나타났으며[14], 다른 연구들에서는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경우,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학년이 높고, 일반대학생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3,17], 입학할 때부터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전공 관련 학습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의 경우에서도 전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실험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와 의미가 상통하다고 판단한다. 추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경로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의 술기 자신감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4],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5]와 신규간호사의[6]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연하기능강화와 응급상황대응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연하기능강화에 대한 수행능력이 증가한 연구[7] 등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고위험 신생아간호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한 임상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21], 모성간호학실습 시 프리셉터 십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적용받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23]. 또한 핵심기본간호술과 필수 간호교육으로 구성된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Jang & Roh[25]는 뇌졸중 대상자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 학생이 자율실습과 임상실습을 적용받은 대조군 보다 간호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호흡기계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시뮬레이션 기반 시나리오 학습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이 상승되어[26], 간호가 필요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각각의 간호에 필요한 수행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성인 심정지, 기도폐쇄, 화상,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술기 자신감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호교육은 간호실무와 관련된 학생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36], 실무에 기반을 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간호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로 연구대상자의 확대 및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효과로 검증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간호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추후연구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2015 Emergency Medical Statistics Annual",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N0.14, 2016.

- [2] Hankook Research, Communication Div., "Report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Safety Accidents", Research Affairs of SNU/SNU R&DB Foundation, July, 2014.
- [3] K. H. Hwang, "Influencing Factors on Safety Awareness and Emergency Response Ability among Employees at Public Facilities", Chung-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7.
- [4] H. Y. Cho, K. A. Kang, "The Influence of Case-based Learning using Video in Emergency Care of Infant and Toddl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 292-30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292>
- [5] J. Y. Hong,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for Childcare Teachers", Seonam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2016.
- [6] Y. H. Lee, "The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on Emergency Management using Low-fidelity Simulator", Eulj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2015.
- [7] S. J. Son, "The Effect of Swallowing and Emergency Response Education Program o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for Home Visiting Care Workers", Dankoo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2014.
- [8] E. S. Le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 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 107-114, 2017.
- [9] Y. J. Kim, "Self-leadership Types of Nursing Students", *Research J. Pharm. and Tech*, Vol.10, No.7, pp. 2350-2354, 2017. DOI: <http://dx.doi.org/10.5958/0974-360X.2017.00416.4>
- [10] J. I. Kim,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 253-262,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5.253>
- [11] Y. H. Choi,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 4604-461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04>
- [12] Y. M. Kim,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 112-12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112>
- [13] K. H. Kim, E. 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 436-4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14] G. S. Oh, H. H. Oh, "The Effect of Perceived Meaning

-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on Academic/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search J. Pharm. and Tech.*, Vol.11, No.1, pp. 369-374, 2018.
DOI: <http://dx.doi.org/10.5958/0974-360X.2018.00067.7>
- [15] C. Shensheng, Z. Kai, “Career Planning Decision-making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Cognitive Science”, *NeuroQuantology Bornova Izmir*, Vol.16, No.6, Proquest document 1, 2018.
DOI: <http://dx.doi.org/10.14704/nq.2018.16.6.1662>
- [16] S. Vahedi, F. Farrokhi, A. Mahdavi, S. Moradi,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Iranian J Psychiatry*, Vol.7, No.2, pp 74-81, 2012.
- [17] J. W. Lee, N. J.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 311-320,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1.311>
- [18] S. M. Ahn, K. H.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 555-565,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1.555>
- [19] GB. Lejonqvist, K. Eriksson, R. Meretoja, “Evidence of Clinical Compet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26, No.2, pp. 340-348, 2012.
- [20] J. Y. Kim, M. K. Kim, J. Y. Cho, “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 669-678,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669>
- [21] S. G. Kim,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High-risk Neonatal Care Educ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Class Participation, Learning Motiv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 6807-681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0.6807>
- [22]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 7698-770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3]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0, pp. 6204-621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204>
- [24] I. S. Seo, S. M. Oh, D. W. Choi, H. O. Park, R. W. Ma,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4, pp. 2276-228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76>
- [25] K. I. Jang, Y. S. Roh,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Stroke Care Education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 pp. 408-41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408>
- [26] H. J. Cho,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Learning Scenario using Standardized Respiratory Patients on Learning Satisfaction, Clinical Skill Competency and Self-efficacy in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3, pp. 2100-2108, 2015.
DOI: <http://dx.doi.org/KAIS.2015.16.3.2100>
- [27] C. C. Manz, "Self 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 585-600, 1986.
DOI: <http://dx.doi.org/10.2307/258312>
- [28] H. S.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Soongsi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 [29]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as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 663-671, 1982.
DOI: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 [30]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5.
- [31]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 6036-604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36>
- [32] T. Türköz, T. O. Mutlu, AkifTabak, M. Erdoğan, “Examining the Levels of Self-leadership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athletes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Vol. L8, pp. 43-52, 2013.
DOI: <http://dx.doi.org/10.2478/pcsr-2013-0011>
- [33] M. J. Kim, S. H.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leadership and Career Locus of Control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1, pp. 399-408,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1.399>
- [34] S. Moradpour, H. A. Abedi, A. Bahona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Nursing Managers of Hospitals Affiliated with Isfah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Annals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10, No.5, pp. 1333-1340, 2017.
DOI: http://dx.doi.org/10.4103/ATMPH.ATMPH_205_17
- [35] Y. S. Seo, C. Y. Jeong,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 138-1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138>

- [36] J. Waddell, K. Spalding, G. Canizares, J. Navarro, M. Connell, S. Jancar, J. Stinson, C. Victor, "Integrating a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Program into the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um: Part 1. Impact on Students' Career Resilience", *Int. J. Nurs. Educ. Scholarsh.*, Vol.12, No.1, pp. 163-173, 2015.
DOI: <http://dx.doi.org/10.1515/ijnes-2014-0035>

도 은 수(Eun-Su Do)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간호, 만성질환자 간호

김 순 구(Soon-Gu Kim)

[종신회원]



- 1998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8월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아동 건강과 부모역할